

# 뉴캐슬, EPL 최고 '갑부 구단' 되나

### 사우디 빈 살만 왕세자 인수 맨 자산 484조 슈퍼 구단으로 부상 맨시티 구단주 만수르는 35조원 손흥민의 토트넘은 8위 랭크

무함마드 빈 살만 알사우드 사우디 왕세자가 이끄는 PIF는 자산 규모가 3200억 파운드(약 484조 원)에 달한다.

PIF를 제외한 현 EPL 구단주 중 최고 재력을 자랑하는 맨시티 구단주 셰이크 만수르(아랍에미리트)의 자산은 233억파운드(35조2000억원)로 PIF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다.

맨시티는 셰이크 만수르가 2008년 인수해 16억 파운드(2조5000억원)를 투자하면서 4차례 정규리그 우승과 리그컵 우승 4회, 잉글랜드축구협회(FA)컵 우승 2회를 일궜다.

하지만, 빈 살만 왕세자가 뉴캐슬을 인수해 셰이크 만수르보다 적극적인 투자에 나선다면 최강 팀으로 떠오른 맨시티의 아성을 뉴캐슬이 위협할 것으로 보인다.

뉴캐슬 매각 대금은 3억 파운드(4500억원) 수준이며, 이 중 80%를 PIF가 부담하고, 10%를 영국 5대 부호인 루벤 헨제, 10%를 여성 투자가 어맨다 스테이블리가 내는 것으로 전해졌다.

3위에는 첼시를 보유한 러시아 올리가르히(신용 재벌) 로만 아브라모비치가 올랐다. 아브라모비치는 96억 파운드(14조5000억원)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흥민의 소속팀 토트넘 홋스퍼의 조 루이스는 39억 파운드로 8위에 랭크됐다.

아시아인 구단주 중에서는 올버햄프턴을 보유한 귀광장 중국 푸싱그룹 회장이 52억 파운드(7조8000억원)로 5위에, 레스터시티의 아야왓 시앗다 나쁘라파(태국) 구단주가 46억 파운드(7조원)로 7위에 자리했다.



지난 3월 뉴캐슬의 알란 세인트-막시미언이 사우스햄턴전서 골을 넣은 후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챔스리그 결승전 8월 29일 개최 추진...미니 토너먼트도 고려

### 유로파리그 결승은 8월 26일 검토

유럽축구연맹(UEFA)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대응책으로 중단된 UEFA 챔피언스리그(UCL) 일정을 8월 29일 끝내는 방안을 모색하고 나섰다.

영국 공영방송 BBC는 17일(한국시간) "UEFA가 2019-2020시즌 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을 8월 29일에 치르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며 "UEFA는 오는 23일 회의를 열어 코로나19 사태로 중단된 챔피언스리그를 어떻게 마무리할지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BBC는 이어 "모든 경기를 치르면서 8월 말에 대회를 끝내는 아이디어도 나왔다"라며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은 8월 29일 터키 이스탄불에서 치르고, 유로파리그 결승전은 이보다 사흘 앞서 폴란드 그

단스크에서 치러질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2019-2020 UEFA 챔피언스리그는 코로나19의 대응책으로 16강전에서 멈춘 상태다.

파리 생제르맹(프랑스), RB라이프치히(독일), 아탈란타(이탈리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스페인) 등 4개 클럽은 8강 진출을 확정했다.

하지만 레알 마드리드(스페인)-맨체스터 시티(잉글랜드), 첼시(잉글랜드)-바이에른 뮌헨(독

일), 리옹(프랑스)-유벤투스(이탈리아), 나폴리(이탈리아)-바르셀로나(스페인) 등 8개 팀은 16강 2차전을 치르지 못한 상태다.

BBC에 따르면 UEFA는 이번 시즌 챔피언스리그 일정을 치르기 위해 2가지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다.

BBC는 "7-8월에 정상적으로 홈앤드어웨이 방식으로 8강전과 4강전, 결승전을 이어가는 방안과 각국의 프로리그 시즌이 모두 끝난 이후 1주 동안 집중적으로 '미니 토너먼트'를 펼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 미국 70대 부부 20년동안 50개주 돌며 골프 진기록

미국의 70대 부부가 50개 주에서 모두 골프를 치는 진기록을 작성했다.

미국 뉴저지주에 사는 짐 맨점과 아내 에밀리는 미국 50개 주에서 한 번 이상 골프를 쳤다고 골프 위크가 17일(한국시간) 보도했다. 둘은 정확한 나이는 밝히지 않았고 70대라고만 알렸다.

맨점 부부가 50개 주 골프 라운드를 완성하는 데는 무려 20년이 걸렸다.

이들을 골프를 친 50개 주에는 미국 본토와 멀리 떨어진 알래스카와 하와이도 당연히 포함됐다.

50개 주 골프 라운드는 애초 계획한 건 아니었다. 지금은 은퇴했지만, 고교 교사였던 짐 맨점과 에밀리는 여행지에서 종종 골프를 치다 2000년 대 골프를 쳐 본 주가 20개 주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50개 주를 모두 돌아보자는 목표를 세웠다.

휴가를 낼 때마다 인접 주를 묶어 골프를 치러 다녔다.

한번은 중북부의 미네소타, 위스콘신, 아이오와, 네브래스카, 사우스다코타를 한꺼번에 돌고 다음 휴가 때는 미주리, 아칸소, 오클라호마, 캔자스를 묶어서 다니는 식이었다.

둘의 50개 주 여행은 작년 7월 오리건주에서 마무리했다.

핸디캡 13이라는 짐은 약 300라운드, 핸디캡 25의 아내 에밀리는 약 200라운드를 돌았다.

그린피는 1인당 15달러에서 400달러까지 천차만별이었다. 가장 비싼 그린피를 내고 했던 골프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인인 플로리다 주 마이애미의 도랄 골프 리조트의 블루 코스였다.

골프장 경치가 가장 좋은 곳으로는 하와이와 콜로라도를 꼽았다. 발이나 다름없는 형편없는 아칸소주의 골프장은 가장 인상에 남았다.

2017년 방문한 알래스카의 골프장에서는 코스에 출몰하는 대형 사슴과 동물인 말코손바닥사슴 때문에 마음을 졸였던 기억도 있었다.

부부는 "정말 멋진 곳을 많이도 다녔고,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 코로나19로 남성보다 여성 스포츠 더 큰 타격

### 콜롬비아 여자축구 전원 계약 보류 테니스·골프 등 개인종목 상황 심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프로 스포츠를 포함한 거의 모든 경기가 중단됐다.

전례가 없는 이 같은 사태는 고액 연봉을 받는 남자 선수들보다 여자 선수들에게 더 큰 고통을 주고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콜롬비아의 축구팀 인테펜디엔테 산타페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손실이 커져 남자팀 선수들의 연봉을 삭감했다. 하지만 여자팀 선수 전원과는 계약을 보류해 팀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BBC는 국제프로축구선수협회(FIFPro) 요나스 바에르 호프만 사무총장의 말을 인용해 "2019년 프랑스여자월드컵 축구대회 이후 상승 곡선을 그렸던 여자축구에서 투자 감소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2020 도쿄올림픽이 1년 연기된 것과도 깊은 연관이 있다. 남자 스포츠만 클리닉 이벤트가 없는 여자 스포츠는 국제 스포츠 행사인 올림픽을 계기로 큰 힘을 얻는다.

올림픽만을 기다렸던 체리 캠프 미국 프로 소프트볼 커미셔너는 "요트를 타고 바다에 나갔을 때 날씨가 험악해 지면 요트 밑에 층으로 내려가면 된다. 하지만 요트가 아닌 카누를 탔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라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남자 선수들이 요트를 탔다면 여자 선수들은 카누를 탄 셈이다.

미국 배구대표팀의 첼시 로빈슨은 "올림픽이 없는 해에는 보통 터키나 이탈리아 프로팀에서 뛰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연봉이 삭감됐을 뿐 아니라 감염 위험 때문에 불안하다"고 말했다.

구단에서 연봉을 주는 단체 종목보다 개인 종목 여자 선수들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테니스나 골프 같은 종목의 선수들은 대회에 나가 타오는 상금에 수입을 의존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 대회 개최가 전면 중단됐다.

여자프로테니스(WTA) 투어는 오는 7월에야 대회를 열 수 있다고 전했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현역 선수 네명 가운데 한명꼴로 올해 단 한 차례도 대회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LPGA 투어는 대회가 줄줄이 취소 또는 연기되면서 올해 출전 자격이 있는 현역 선수 214명 가운데 28.5%인 61명은 단 한 번도 대회에 가지 못했다. /연합뉴스



미래의 메시 나가신다. 코로나19 확산이 전세계에서 계속되는 가운데 18일 스웨덴 레름에서 유소년 축구 클럽 '레름스 IF P90' 선수가 기량을 뽐내고 있다. /연합뉴스

## 당신의 로망은 어떤곳 인가요?

### 친환경 목조주택을 지어드립니다



목조주택 설계·시공 전문기업  
우드빌더스(주) 휴인(주)

**Modern**

모던 스타일



**Classic**

클래식 스타일



**Mediterranean Sea**

지중해 스타일





문의 상담 062) 945-0036~7